

무안공항, 2인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 대상... 전남 관광 활성화 기대 순천만정원박람회·광주비엔날레 등 성공개최 관광객 유치

전남도가 지역의 국제행사 성공 개최와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무안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무안국제공항 무사증 입국 대상인 아시아 3개국 국민은 원래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 그러나 법무부에서 해외 관광객 유치 및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5인 이상 단체관광객이 현지 모집여행사를 통해 무안공항으로 입·출국시 사증 없이 15일간 전남뿐 아니라 광주, 전북, 제주까지 관광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제도 운영 기간은 2024년 3월 31일까지 1년이다.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장 가능성이 있다.

이는 김영록 전남지사가 2023년 호남권 국제행사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국제농업박람회, 광주비엔날레, 아태 마스터스대회, 세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등의 성공 개

최와 무안국제공항의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해 8월 법무부에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제도 도입을 건의해 반영된 것이다.

김 지사는 또 지난 2월 베트남의 관광시장을 조기에 선점하기 위해 나트랑에서 전남 관광설명회와 트래블마트를 열고, 베트남 관광객 1만여 명을 유치하는 나트랑-무안국제공항 전남 여행상품 운영 업무협약을 했다.

전남도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국가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세기 운항 관련 여행사, 항공사 등과도 협의 중이다. 또 법무부(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무안공항출장소)와 함께 관광객 무단 이탈자 발생에 대비해 관계 기관 간 주어진 역할을 나누고 긴밀하게 협조할 방침이다. 지난 6일 무사증 입국제도 시행에 대비해 한국관광공사 무안공항, 법무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무안공항출장소, 전남도,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 등과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재외공관을 통해 등록된 현지 모집여행사는 단체관광객 모집 단계부터 여행 신

청자가 제출한 서류 중 허위 서류가 있는지 여부, 무단이탈 가능성을 성실하게 확인해 이탈 우려자 탐승 방지에 노력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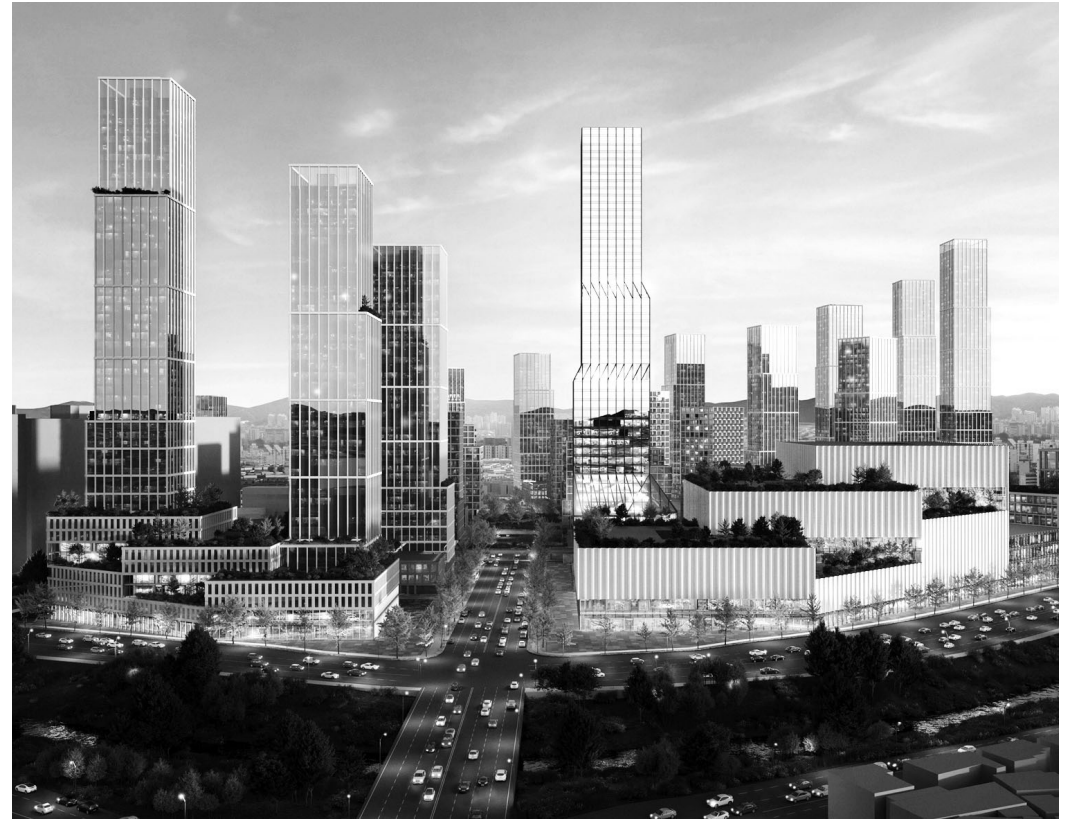
전남도는 신청자 명단을 받아 입국자 동인 여부 및 2차 허위서류 여부를 확인하는 국내 전담여행사를 관리한다. 법무부(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무안공항출장소)는 입국심사를 통해 부적격자 입국을 방지하고, 준법도움미 제도를 운영해 단체관광객 출입국 수속 지원과 이탈 방지에 힘을 보탬 예정이다.

무사증입국 제도로 전남을 찾는 동남아 관광객의 발길이 늘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전남도는 관광객을 유치할 능력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현지 모집여행사를 발굴하고 유튜브, 인스타 등 누리소통망(SNS)을 활용한 입소문 판매(바이럴 마케팅)도 전개할 방침이다.

조대정 전남도 관광과장은 "무안공항을 통한 해외 관광객 유치는 전남의 글로벌 브랜드 확립과 경제적 효과 제고, 국제선 운항 노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며 "코로나 일상회복 시대 국제관광 재개에 따른 해외 관광시장 선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 국제 설계 공모 덴마크 어반 에이전시 '모두를 위한 도시' 선정



광주시 북구 임동 옛 전방방직·일신방직 부지개발 국제설계 공모 당선작 조감도

'15분 이내 생활권 도시' 제안 광주시, 7월까지 협상 마무리

광주시는 북구 임동 소재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사업을 위한 국제설계 공모에서 덴마크 건축설계회사인 어반 에이전시의 '모두를 위한 도시(City For All)'가 당선작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국제지명 설계 공모에는 국내외 8개 작품이 출품됐으며, 지난 17일 제2차 심사위원장을 비롯한 국내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선정됐다.

당선작 '모두를 위한 도시(City For All)'는 환경적·경제적·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도보나 자전거로 15분 이내 생활권 반에 접근할 수 있는 '15분 도시'라는 새로운 도시 계획 개념을 적극 반영했다. 또 'Green Network'(그린 네트워크·녹색축)로 명명된 내부 순환로를

통해 주요 거점시설을 연계하고 단계적 개발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까지 두루 갖춘 계획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설계공모 당선자에게는 랜드마크 타워의 계획 설계권이 부여되고, 나머지 초창기에는 1억원의 참가보상비가 지급된다. 광주시는 마스터플랜 설계공모 결과를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개발 사업계획에 반영해 오는 7월까지 부지개발 사업자인 (주)휴먼스튜디오에프비와 도시계획환경사 전현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제지명초청 설계공모 당선작을 포함한 출품작(총 8건)은 공모전 공식홈페이지(http://www.ji-cd.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0일부터 24일까지 시청 1층 시민실에서 전시할 예정이다.

김종호 광주시 도시공간국장은 "미래지향적 도시경관 창출과 창의적이고 유연한 도시공간계획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오늘부터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

의료기관은 의무... 혼잡 시간대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20일부터 버스와 택시·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터미널·기차역·대형 마트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된다. 다만,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시설·정신건강증진 시설·장애인 복지시설)과 의료기관, 일반 약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19일 광주시·전남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서 제외됐던 대중교통과 마트 내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20일부터 해제된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버스와 지하철, 택시

는 물론 비행기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자율에 맡겨진다.

광주시는 다만,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코로나 19 등 호흡기 감염병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보호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코로나 19 의심 증상,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밀폐·밀집·밀집 환경, 다수가 밀집된 상황에서 합창·대화·합성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해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반면, 일반 약국은 의료기관 이용 후 바로 찾는 경우가 많아 코로나 19 확진자나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이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착

용 의무를 유지했다.

병원 등 의료기관과 일반 약국,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소형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의 경우도 마스크 자율화의 이점보다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노출에 따른 위험이 더 클 것으로 판단돼 마스크 착용을 계속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들 의료기관과 일반 약국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해당 시설 관리자·운영자에게는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고시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이들 공간에 대해서 오는 4월 말~5월 초로 예상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 19 비상사태 해제 논의와 이에 맞물린 국내 감염병 위기 단계 하향 등에 따라 마스크 의무 조정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확진자 7일 격리까지 포함한 일상 회복 로드맵을 검토해 이달 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최권일 기자 cki@

여수·고흥서 드론 활용 '배송·사회안전망' 실증

실증도시 선정... '미래형 운송기 중심, 전남' 실현 탄력

국도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의 '드론 실증도시' 공모사업에 전남에서는 여수시와 고흥군이 선정됐다. 올해 국비 25억원을 확보, 물품 배송 및 사회안전망 구축 실증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형 도심항공 모빌리티(K-UAM) 그랜드챌린지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지정"에 이어 올해 '드론 실증도시'까지 선정되면서 블루이코노미 핵심과제인 '미래형 운송기 중심, 전남'을 실현하겠다는 전남도의 목표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은 시군 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 모델을 발굴해 국토부에 제안하면 산업용 드론 육성 및 활용 서비스 모델에 적합한 사업에 국비 지원을 받아 연구 및 실증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런 공모사업 선정으로 여수시는 국비 11억원을 확보했다. (주)해양드론기술, (주)지계연연구소, (주)스카이포츠-K 등 3개 기업이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해 여수 화정면 개도리 등 일원에 ▲

드론배송경로(섬-섬, 섬-육지) 실증 ▲드론 배송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고흥군은 14억원을 확보했다. 전남테크노파크, ㈜대한항공, 마린로보틱스(주), 피앤유드론, ㈜전풍, ㈜나다 등 7개 기업이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해 고흥 도양읍 봉암리 등 일원에 ▲드론 활용 사회안전망시스템 실증 ▲긴급 의료 물품 배송 실증 ▲현장밀착형 생활 안전 모니터링 실증 ▲인공지능(AI) 기반 유해조수 퇴치 실증에 나선다.

김종갑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 기업 우수 기술과 드론 모델 실용화 및 상용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미래비행체 산업을 선도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

대체공휴일 1일간 발생 소비지출액 2조4천억원

정부가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성탄절(12월 25일) 등에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대체공휴일 1일간 발생하는 소비지출액이 2조4000억원에 달해 내수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9일 발표한 '대체공휴일 지정 효과, 정책 노력에 달렸다' 보고서에서 대체공휴일 확대에 따른 거시경제적 효과를 추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대체공휴일의 영향을 받는 인구를 2022년 평균 취업자 수인 2809만명으로 가정했다. 아울러 대체공휴일 1일

간 1인당 소비지출액을 8만5830원으로 가정해 산출했다. 대체공휴일 적용 인구나 대체공휴일 1인당 소비지출액을 곱하면 경제 전체의 소비지출액은 2조4000억원에 이른다는 계산이다.

생산·부가가치·취업 유발계수를 이용해 대체공휴일 1일의 경제적 효과를 산출한 결과, 생산 유발액은 4조80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은 1조9000억원, 취업유발 인원은 4만명으로 추산됐다. 이중 파급 경로별로 보면, 음식점·숙박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지출액이 약 9000억원을 차지하며 경제적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 임대차 보증금·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법인회사 신용상태 파악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2023 고소득 추천 목록

두릅	민두릅 참두릅	가시 없는 민두릅, 참두릅, 정강두릅은 봄부터 가을까지 수확
포도	루비로망	직경이 거봉포도 크기의 2배 (3cm, 무게20g, 당도 18브리스 이상)
감	감풍, 원추 태추단감 슈퍼대봉	신품종, 추위에 강하고 슈퍼단감 배 맛이 나는 단감 중에 최고! 대봉종에 맛이 뛰어나 식재료를 많이 합니다.
임나무	민임나무 가시없는 임나무	가시 없는 민임나무 가시 있는 것보다 수확이 2배가 나오고, 효능이 같습니다.
호두	신품종 호두	주기결실, 열매가 크고 속이 짙 치면서 가피가 얇아 손으로도 잘 부셔집니다.

사과, 신품종 호두, 신품종 유실수 등 품종이 다양합니다.
*2023년 인기 품종으로 조기 품종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무는 "갯을농원"과 상담하세요!
모목 식재 및 재배 관리까지 무료교육, 무료상담해 드립니다.
휴경지 노는땅 상담해드립니다.

갯을농원 모목상담 : 010-3121-7676 문의전화 : 053-856-1144
경북 경산시 하양읍 화성로25 농협 312-3121-7676-91 (예금주:정종화)

공 고

전남광역시 오산면 단사리 단사마을 유전계 정 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아 래 -

- 장기총회인원**
가. 2022.11.27차 임시총회(회칙개정, 회원명부 확정, 대표자선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송 유전계의 등록변호등록증명서 및 고유번호증 발급제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추진 건 나. 명의신탁자 대한 내용증명 및 합의서 건 다. 명의신탁자 중합의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건
- 일 시**: 2023년 3월 25일(토요일) 11시
- 장 소**: 단사리 마을회관
- 연락처**: 010-2045-3496

2023년 3월 20일
단사마을 유전계회장 김대호

분 실 공 고

• 분양계약서: 광주광역시 동구 선교동 우방아이유엘 1차 107동 2002호
• 계약자: 백영봉
위와 같이 분실공고함.
2023년 3월 20일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71년

光州日報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세남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